

# 남원 피오리움 윈터페스타 열린다

2월 28일까지 할인 전시·설 연휴 특별 프로모션 등 진행

남원시에서는 북한문화공간인 피오리움의 겨울 관람객 문화비 부담을 덜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윈터페스타를 진행한다.

겨울 방학 시즌을 맞아 기획된 이번 행사는 누구나 △성인 7,000원(정상가 12,000원) △청소년 5,000원(정상가 8,000원) △어린이 4,000원(정상가 6,000원)의 정액 40%가량 할인가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남원시의 인구정책인 '남원누리시민'이나 남원시민의 경우, 상시 운영되는 '가족 패키지'를 이용하면 △4인 가족(성인2+소년2) 기준 16,000원 등 인원 구성에 따른 전용 우대가를 적용받을 수 있어, 관람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내 진행되는 '남원과 함께' 캠페인도 놓칠 수 없어, 오는 6월 30일까지 남원시 관내 음식점·카페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이나 관내



남원피오리움 윈터페스타 포스터

운동·문화시설 이용 내역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최종 할인가에서 3,0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을 수 있다.

설 명절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설 연휴 특별 프로모션'이 더해진다. 연휴가 본격화하는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은 △어린이와 청소년 △한복 착용자 본인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해, 3대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월 13일부터 22일까지는 고향을 찾은 △설 귀성객 본인을 대상으로 입장료 정상가 대비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명절 기간 문화 나들이를 지원한다.

특히, '적도마의 해'를 기념해 말미 관람객은 2월 28일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초·중·고·대학생 신입생 및 입학생 역시 '신입은 처음이지?' 프로모션을 통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피오리움 관계자는 "프로모션별 대상과 필수 지침 증빙서류가 상이하니 방문 전 공식 SNS(@fiorium\_official) 및 전화 문의(063-620-5567)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여행 경비지원 '고창한밤' 지속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체류형 관광 지원사업 40팀 선착순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외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경비지원 사업 '고창한밤'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창한밤'은 고창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지원사업으로,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에는 211팀(602명)이 참여해 약 1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했으며, 참가자(신청자) 중 서울·경기권 비중이 35%, 30~40대가 약 80%를 차지하는 등 외부 핵심 소비층 유입 성과를 보였다.

2026년 '고창한밤'은 2월부터 본격 운영되며, 운영 안정화를 위해 사전 모집제로 진행된다.

사전 모집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총 4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 인원 총인 시 조기 마감된다.

여행경비지원금은 고창사랑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되며, 참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산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무단 불참을 방지하기 위해 팀당 참가비 1만 원을 선납하되, 여행 완료 시 전액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이 어려운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고창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고창마켓'을 통해 사용 가능하도록 해 지원금 활용도를 높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행경비지원 '고창한밤'

# 정읍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5만원으로 상향

정읍시가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연 15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추가 혜택까지 마련해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 문화이용권으로, 문화예술 공연 관람부터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원 이상 사용했고,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다만, 올해 처음 카드를 발급

받거나 자동 재충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2월 2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munika)이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21)

## 명희도 희생될 수 있다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강용대는 곧바로 부대를 정렬하고 출발을 지시했다. 상부의 지시는 해리면에서 심원해안으로 진출하면서 선운산에 은거한 인민군 잔당들과 추종세력을 소탕하려는 것이었다.

강용대는 각 소대로 임무를 지시했다. 일개 소대를 선발대로 보내고 중심부에 두 개 소대를 배치한 뒤 후미에서 한 개 소대가 후발대로 따라 오는 방식으로 부대 이동이 시작됐는데, 남준이 속한 학도대는 적절히 인원을 분배하여 각 소대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편성했다.

강용대는 남준을 곁에 있게 했다. 중대는 몇 문의 경기관총과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었고, 병사 각자는 엠블 및 카빈 소총을 휴대했으며 탄약과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학도대는 카빈 소총을 파지하고 있었다. 먼저 선발 소대가 무장음을 떠났고 잠시 후 중심부 병력이 수색을 시작했으며 이후 후발 소대가 뒤를 이었다.

중대는 서서히 봉림마을로 접근했는데, 동이 튼 뒤라 중대에 저항하는 자들은 없었다.

산에서 내려왔던 잔존세력들은 이미 보급 등 임무를 완수한 뒤 새벽녘이 울기 전에 산으로 철수했을 것이다. 게다가 토벌대가 함부로 남자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내들은 대부분 낮에는 산으로 피신한 터라 중대가 지나가는 곳에서 남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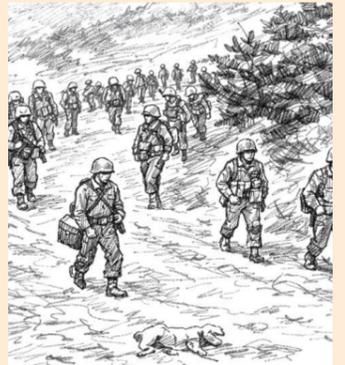
남준은 봉림을 지나면서 걱정이 훌쩍 더 키를 키웠다. 명희에게 강용대 중대가 황전마을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야 했는데 남준은 강용대 옆에 연락병처럼 붙어 있어 운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준은 조금씩이 갔고 속이 답답해지면서 소양증이 도졌다. 가려움을 호소하면서 뒤로 빠질까, 선발 소대는 이미 봉림을 통과했다는 무언이 왔고 본대가 봉림에 진입할 차례다.

봉림만 통과하면 곧바로 황전에 도달한다. 황전으로 들어가면 강용대가 어떤 식으로 황전 사람들을 처리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가장 막다른 골목까지의 수를 생각하면 황전 사람들 중 박대우가 그렸던 것처럼 강용대는 박세만을 골라 전부 사살할 수도 있다.

명희도 박세다. 명희도 희생될 수 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강용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명희에게 이 위기를 전달할 수 있



생성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겠는가.

본대는 봉림으로 완전히 진입했다. 인민군 잔존세력이 있을까 싶어 집주변을 살폈지만 다른 마을에 비해 형식적이었는데, 남준이 이미 봉림은 잔존세력이 없다는 걸 설명했던 터였다.

강용대와 남준이 각 골목길을 빠져나오려는데 남준 또래의 청년 하나가 강용대에게 달려왔다.

"올래 삼촌!"

남준의 동창 강민석이다. 남준의 기억에 강민석도 그날 창고에 갇혔었다. 창고에 갇힌 사람들은 모두 박대우 일행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민석은 살아 있었다. 천만 다행이었다.

민석 또한 남준의 먼 친척이며 강용대와도 친척관계다. 강용대는 민석을 아는 체했다. 남준도 민석이 반가웠으나 그 순간 이때를 틈타 강용대로부터 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강용대와 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남준은 뒷걸음치며 부대에서 빠져나왔다. 다른 학도대원에게 변소가 급하다는 말을 하고는 얼른 경찰과 학도대원이 없는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산길로 이동하여 황전에 닿아야 한다. 이 지저 앞엔 선발대가 가고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남준은 산길을 다들쭉가 되어 달려 봉림을 벗어났고 곧 개활지가 나왔지만 낮은 포복으로 역시 통과한 후 개천을 지나 황전과 연결된 산으로 올라갔다. 저 앞에 선발대가 경계를 유지하며 황전 입구로 접근하는 게 보였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쯤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